이베로아메리카 제9권 2호(2007. 12): 101-121

라틴아메리카 비교문학의 동향과 전망*

김 현 균

<Abstract>

La literatura comparada en América Latina

Es sólo a partir de los años sesenta en que la literatura comparada, en América Latina, adquiere estatus de disciplina académica y se convierte en campo de investigación reconocido. Aun hasta entonces, el comparatismo había estado apegado bien al modelo francés de fuentes e influencias, bien a la perspectiva formalista norteamericana, que ratificaba su situación de dependencia. Sin embargo, a mediados de los años setenta, coincidiendo con la gran transformación sufrida por la disciplina en el plano internacional, América Latina empieza a articular sus propias propuestas, en vez de producir respuestas a teorías literarias y críticas configuradas en el centro. En América Latina, la literatura comparada es hoy un terreno amplio y movedizo, con innumerables posibilidades de exploración, que tras superar el afán totalizador de fases anteriores está adoptando la forma de un diálogo transcultural basado en la aceptación de las diferencias.

[Key Words: Literatura comparada / Latinoamericanismo / Estudios culturales / Eurocentrismo]
[주제어: 비교문학 / 라틴아메리카니즘 / 문화연구 / 서구중심주의]

* 이 연구는 2003년 서울대학교 학제간협력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Ⅰ. 들어가며

"카프카가 우리 곁을 지나간다. 우리는 감격하여 그에게 인사한다. 그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Francisco Hernández 2003, 44)

수잔 배스넷은 1993년에 출간된 『비교문학』에서 "어떤 의미에서 비교문학은 죽었다"(Bassnett 1993, 47)라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곤살레스 에체바리아는 "과연 비교문학이 분과학문으로서 살아남았는가"(González Echevarría 2004, 89)라고 묻는다. 또 스티븐 토토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의 무게중심을 비교문학에서 비교문화연구로 옮겨갈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다(Tötösy de Zepetnek 1999). 담론 권력의 중심인 미국에서 문화연구가 눈에 띄게 세력을 확장하는 등 최근 비교문학이 급격한 제도적, 학문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배스넷의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1] 그러나 1960년대에 서구에서 터져 나온 '소설의 죽음' 선언과 마찬가지로 비교문학에 대한 배스넷의 암울한 진단 역시 명백히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구 비평가들이 1960년대 이후 제3세계 문학이 거두게 될 눈부신 성공을 예상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소설의 죽음'을 예단했던 것처럼, 배스넷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전통적으로 주변부로 간주되어온 지리·문화적 공간에서 최근 비교문학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배스넷의 선언은 비교문학 자체에 대한 사망선고라기보다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전통적인 비교문학 중심에서 이 분과학문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말해준다.

영국의 고전주의자 C. M. 바우라는 일찍이 그의 저서 『영감과 시』에서 모데르니스모(Modernismo)의 주창자 루벤 다리오를 언급하면서 "그의 철학의 부재는 예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예술에 첫사랑을 준, 그리고 그런 이유로 다른 무엇보다 예술을 보물처럼 애지중지할 뿐 그 너머를 바라볼 필요

1)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전통적인 어문학 중심의 학과 명칭을 '문화학과'로 바꾸었으며, 비교문학과의 경우에도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미네소타대처럼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and Comparative Literature'(문화연구·비교문학 학과)로 개칭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한 비교문학 관련 교수직과 강좌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조건이다"(Bowra 1955, 244)[2]라고 말한 바 있다. 서유럽문학의 배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 논평의 명백히 인종주의적이고 서구중심주의적인 시각은 우리 시대의 비평 지형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두 가지 상황의 징후를 잘 보여준다. 그 하나는 라틴아메리카문학의 중심부로의 진입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시대의 국가횡단적 문학체계 내에서 라틴아메리카문학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구 비평계가 일관되게 드러낸 무능력이다. 그동안 다각도로 변화가 모색되었고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비평적 접근이 시도되었지만, 전통적인 비교문학 중심지의 연구자들에게 라틴아메리카문학은 여전히 불편한 요소로 남아있다.

주지하다시피, 비교문학의 뿌리 깊은 서구중심주의·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르네 웰렉이나 에티앙블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에티앙블은 선량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괴테의 세계문학(Weltliteratur) 개념은 아프리카문학이나 아메리카인디오문학 같은 비서구문학을 도외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식민주의적 제국주의는 부르주아 의식의 소산이며 괴테의 계승자들은 문학을 "주인의 문학과 노예의 문학"으로 갈라놓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세계문학을 특정 민족의 결정론에서 해방시켜 진정 세계주의적이고 집단적인 문학적 실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에티앙블의 논리다.

세계문학에 대한 급진적 재해석을 제안한 에티앙블의 성찰과 동시에, 1960년대 이후 세계문학의 비서구세계로의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마술적 사실주의(realismo mágico) 및 민족해방서사의 국제적 성공과 뒤이은 탈식민주의 이론의 대두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월레 소잉카 같은 작가들을 통한 제3세계 문학의 국제화는 서구에서 비평의 장(場)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제국 되받아 쓰다"(Empire writes back)[3]라는 개념을 통해 비서구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탈식민주의 이론의 등장이었다.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인 에드워드 사이드, 호미 바바, 가야트리 스

2) 앙헬 라마(Ángel Rama)는 『루벤 다리오와 모데르니스모(Rubén Darío y el modernismo)』(Caracas: Alfadil 1985, 10)에서 이 구절을 논평하고 있는데, 그는 바우라와 달리 다리오의 보편주의의 라틴아메리카적 성격을 강조한다.

3) 이 개념에 대해서는 빌 애슈크로프트 등이 쓴 다음 책을 참조할 것: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1989),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London: Routledge.

피박 등에 의해 제기된 서구중심성에 대한 도전은 역사적·문화적 맥락의 차이와 특수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문학사를 구축하기 위한 폭넓은 움직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문학 정전(canon)에 대한 문제제기는 범세계적 담론을 구축하려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항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위의 역할을 했다. 정전의 문제는 세계화 담론을 통해 특수한 이해관계에 유리한 결정을 정당화시켜온 권력 집단에 의해 제도화된 가치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댐로쉬가 "구세계로부터 온 세계로"(from the Old World to the Whole World)(Damrosch 2003, 110)라고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정전의 대대적인 개방과 문학연구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권력과 지배의 질서를 넘어서는 탈국가적, 탈민족적 지향을 불러왔다. 그러나 비교문학의 서구중심성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서구적 요소를 준거로 삼는 이항대립의 형태로 표명되었다. 최근의 한 예로 "횡단적 사유의 세계체제론자"인 프랑코 모레티가 「세계문학에 관한 추론」에서 제안한 '원거리 읽기'(distante reading)의 개념을 들 수 있다(Moretti 2000, 54-68).

'원거리 읽기'란 주로 영어권 패러다임에서 전개된, 소위 '근거리 읽기'(close reading)에 대한 반명제로서 본질적으로 서유럽에 국한된 괴테적 이상과 앵글로색슨 전통의 방법론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모레티에 따르면, '근거리 읽기'는 극히 제한된 수의 정전에 의존하고 개별적 텍스트에 지나치게 천착하기 때문에 세계문학과 양립할 수 없다. 반면, 그가 제안하는 '원거리 읽기'는 기본적으로 '2차적 비평'을 일컫는다. 즉 텍스트 읽기는 해당 문학 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세계문학 비평가는 개별적 비평작업에서 추출된 공통의 원형을 찾아 개념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세계문학의 개별적 독서는 특정한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자의 취향과 가용성에 의존하므로 연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반면, 텍스트 읽기와 정전의 정립을 각 전통의 비평가들에게 위임한다면 세계문학 비평가는 개인적 취향의 개입 없이 세계체제에 대한 한층 더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스피박이 지적한 대로, '원거리 읽기'는 실천으로서의 텍스트 읽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단지 주변부로 이전되는 일종의 국제적 노동 분업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한다(Spivak 2003, 108). 실제로 모레티의 제안은 제한된 발화 위치, 즉 주로 미국과 서유럽의 아카데미에서만 가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그의 방법론은 헤게모니 언어로서의 영어의 중심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게다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은 과연 누구의 견해에 따라 선택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령, 모레티는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경우 진 프랑코와 도리스 섬머의 문헌을 선택하는데, 두 사람 모두 영어권 국가들에서 널리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이다. 반면에 지역의 문학사 기술에서 영향력이 더 큰, 앙헬 라마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 결국, 모레티의 제안은 '주류' 밖에서 생산된 문학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함으로써 비교문학의 민족주의적이고 서구중심주의적인 시각에 일정한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 골격은 여전히 중심부가 지배하는 지식의 지정학에 토대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중심부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이항대립적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과제는 라틴아메리카 비교문학자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왜 라틴아메리카인들은 고유한 이론이나 담론을 생산하지 못한 채 단순한 학문적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중심부의 이론을 수동적으로 재생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들의 '이론적 말더듬기'(balbuceo teórico)(Achugar, 11)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유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가? 이 고통스러운 물음 앞에서 '밖으로부터' 라틴아메리카문학을 규정해왔던 서구의 지배담론에 맞서 '안으로부터' 자신들의 문학을 설명해낼 독자적인 담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최근 비교문학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역동적인 공간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Ⅱ. 라틴아메리카연구와 미국 내의 비교문학 동향

오늘날 비교문학이라는 분과학문 내에서 미국의 학문적 발전이 지닌 절대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미국학계에서 벌어진 최근의 몇몇 논쟁은 라틴아메리카 비교문학의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출신 학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미국 대학은 냉전시대 이후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니즘(latinamericanism)을 양산해온 공간이며 최근 미국 내에서 전개된 거의 모든 비평적 논쟁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사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미국비교문학회(ACLA)는 비교문학의 교육과 연구를 규정하는

기준을 상시적으로 현재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각각 1965년(The Levin Report), 1975년(The Greene Report), 1993년(The Bernheimer Report)에 세 개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들은 언제나 미국의 비교문학계에서 논쟁의 동기를 제공해왔다. 특히 논쟁적인 성격이 강한 '번하이머 보고서'는 비교문학의 급진적인 변화를 제안한다. 앞의 두 보고서는 비교문학의 목표가 '국민문학'의 '비교'에 있다는 점을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면, 1993년 보고서는 비교문학의 뿌리 깊은 서구중심주의와 배타성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20세기 말의 다문화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문학은 새롭게 변모해야 하며, 전통적으로 타 학문분야에서 담당했던 영역으로까지 논의의 장(場)을 확장해야 한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문화, 이데올로기, 인종, 젠더처럼 확장된 담론의 장(場)으로 문학을 맥락화하는 형식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문학'이란 용어가 비교문학의 연구대상을 기술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작가, 국가와 민족, 시기, 문학 장르 등에 토대한 과거의 문학연구 모델과는 판이하게 다르다(Bernheimer 1995, 42). 2007년 4월 멕시코의 푸에블라에서 개최된 미국비교문학회 학술대회 대주제인 "Trans, Pan, Inter: Cultures in Contact"는 흔히 문화연구로의 전화(轉化)로 이해되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번하이머 보고서가 제안한 어젠다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학계에서 발견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의 하나는 라틴아메리카연구와 문화연구, 비교문학 간의 비평적 횡단 현상이다. 가령, 문화연구는 라틴아메리카연구와 비교문학에 영향을 끼치며 문화는 종종 문학에 호의적인 대상이 된다. 또 라틴아메리카가 비교문학과 문화연구에서 예전보다 더 눈에 띄게 자주 다뤄진다. 이러한 분과학문들 간의 횡단 현상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대학제도에서 인문학이 처한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그 배경에는 분과학문을 횡단하는 협력적 프레임워크, 즉 학제연구와 소통이 인문학의 미래를 위협하는 학문적 분리와 편협성을 극복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완성된 학문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비교문학, 문화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가 중첩되는 비교연구에서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핵심 분야는 인터아메리카연구(Inter-American Studies)와 대서양횡단연구(Transatlantic Studies)이다. 특히 위계적인 분과학문 체계를 탈피해 상호문화적 전망을 추구하는 확장된 지역횡단적 비교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후자의 경우는 훌리오 오르테가가 주도하고 브라운대학이 주관하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미국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에 관한 대서양횡단 프로젝트'가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

미국 내의 비교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문학이 고립되어 왔음을 염두에 둔다면 우선 활발한 소통과 상호작용이 라틴아메리카연구자들과 비교문학자들의 역량을 상보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연구자들은 국가적 경계를 횡단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작업은 끊임없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려된다. 그러나 국가, 역사, 정치, 문화정체성 등 공통의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연구자들은 전통적으로 비교문학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주변부 문화를 연구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폄하하거나 중심부의 논리로 타자를 포섭해온 비교문학의 오랜 역사에서 그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비교문학의 뿌리 깊은 문화제국주의와 엘리트주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같은 탈식민 문화들에 대한 연구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비교문학의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서구문학 연구를 비교문학의 요체로 간주해왔으며,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주변부 작가들은 흔히 그들의 문화적 맥락을 제거하거나 그 맥락을 더 저급한 문학적 가치의 표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읽힌다. 이런 의미에서 배스넷은 비교문학의 핵심을 이루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는 많은 초기 비교문학자들의 식민주의적 관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Bassnett 1993, 19). 비서구적 타자의 문학을 "열등한 모방 신드롬"의 산물로 폄훼하는 이러한 시각은 중심부에서 활동하는 학자와 작가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클레멘츠는 『분과학문으로서의 비교문학』에서 "붐과 더불어 스페인어권 아메리카 작가들은 더 이상 미국과 프랑스 작가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Clements 1978, 103)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칠레의 소설가 호세 도노소의 『붐의 개인사(Historia personal del "boom")』를 언급한다. 클레멘츠는 붐 이전의 라틴아메리카문학은 "열등한 모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노소를 "토착 정보제공자"(native informant)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4) http://www.brown.edu/Departments/Hispanic_Studies/Juliortega/Transatlantic.htm

한편, 라틴아메리카연구자들은 연구대상으로서의 주변부 문학에 대한 편견을 경계하며 유럽과 미국의 이론을 분별없이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비평적 전거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문화적 논쟁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정당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자는 것이 이들의 화두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라틴아메리카연구자들은 연구의 초점을 '위대한 책들'에서 문화로 옮겨간다. 가령, 존 베벌리는 『문학에 맞서(Against Literature)』에서 정전화된 라틴아메리카의 '고급' 문학을 폐기하고 교육과 연구의 대상을 하위주체들의 대안적 문화생산으로 대체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2년 결성되어 비교적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증언서사(testimonio)[5]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실천은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의 중심 이동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미국 대학원의 리딩 리스트에서도 과거에 전통적인 정전에 밀려 소외되었던 문학 및 문화 형식들 —증언서사, 여성글쓰기, 영화— 이 두드러진다. 데 라 캄파는 새로운 문화형식들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새로운 연구방법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예컨대, 증언서사에 대한 관심과 관련해 그는 "리고베르타 멘추가 라틴아메리카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읽히는가에 대한, 즉 독자의 수용에 대한 경험적 작업을 통한 비교론적 분석"(de la Campa 1999, 23)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틴아메리카의 텍스트들이 미국 아카데미에 의해 읽히고 소비돼온 방식을 고찰하고 있는 닐 라르센의 『남쪽으로 북쪽 읽기(Reading North by South)』도 좋은 예다. 또 알베르토 모레이라스는 『차이의 고갈(The Exhaustion of Difference)』에서 라틴아메리카연구를 구성해온 인식체계와 전지구적 발전을 지적함으로써 이 연구 분야의 급진적 재구축을 제안한다. 라틴아메리카연구자들은 문화 영역에 접근할 때 전지구적 권력관계를 고려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망명과 이민, 국가 주권과 외국의 간섭 등의 주제는 종종 라틴아메리카

5) 증언서사는 1960년대에 미겔 바르넷의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대기(*Biografía de un cimarrón*)』(1966) 같은 텍스트들과 함께 시작되어 1970, 8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내 이름은 리고베르타 멘추(*Me llamo Rigoberta Menchú y así me nació la conciencia*)』(1983)의 발간으로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라틴아메리카 증언서사에 관한 비평적 성과는 구겔베르거(Georg M. Gugelberger)가 엮은 『실재계: 증언서사와 라틴아메리카(*The Real Thing: Testimonial Discourse and Latin America*)』(*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에 잘 수록되어 있다.

의 문화적 전개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세계화에 대한 초국가적 비교연구와 하위주체 연구, 그리고 탈식민주의, 탈서구주의 연구 등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탈영토적 고찰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새로운 비평적 인식론을 가리킨다.

그러나 전통적인 비교문학이 비역사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라틴아메리카연구 역시 문화적 권력과 지배의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66년에 창설된 라틴아메리카연구회(LASA)와 1960년에 창설된 미국비교문학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학문 발전과정에서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연구는 역사적으로 사회과학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많은 경우 보수적인 정치적 의제와 관련되었다. 미뇰로는 라틴아메리카연구의 부상을 냉전시대에 증대된 미국의 국제적 파워와 관련시킨다(Mignolo 2000, 194). 또 모스는 미국의 많은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이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식민주의적 태도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작업이 종종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잠재의식적 적대감"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Morse 1989, 170). 모레이라스 역시 라틴아메리카니즘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연구자들의 지식은 제국의 국가기구에서 물려받는 학문 권력의 한 형태"(Moreiras 2001, 32)라고 진단한다. 결국 미국의 눈으로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지역연구 형태, 즉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담론의 앵글로색슨화는 특권적인 권력 담론들을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교문학의 진보적 전통이 존재하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연구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처럼 진보적인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발화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라틴아메리카연구와 비교문학 모두 식민주의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제국주의적 지식체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라틴아메리카의 고독(La soledad de América Latina)」이라는 제하의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중심부의 시선에 내재하는 식민주의적 충동을 비판한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잣대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갈수록 더 자유롭지 못하고 더 고독한 미지의 존재가 되어버릴 뿐입니다."[6] 이것이 중심부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된 '고독'에서 라틴

아메리카인들을 해방시킬 새로운 담론이 라틴아메리카 내부로부터 생산되어야 하는 당위적 이유다.

Ⅲ. 라틴아메리카 비교문학의 전통과 동향

유럽에서 세계문학이 논의되던 시기에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막 독립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특히 브라질에서 비교문학의 개념과 방법론은 거의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비교문학자인 타니아 프랑쿠 카르발얄에 따르면, 브라질 비평가인 조앙 리베이루(João Ribeiro)는 일찍이 1905년에 『미학 페이지들(Páginas de Estética)』이라는 문학미학 매뉴얼에 당시 유럽 비교문학의 동향에 관한 글을 싣고 있으며, 알마치오 디니스(Almachio Diniz)가 1911년에 출간한 『비교문학의 미학(Da Estética na Literatura Comparada)』에서는 이미 분과학문의 명칭이 부각되고 있다(Carvalhal 2006, 34-35). 1910년 무렵까지 유럽에서 비교문학이 초보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비교문학지(Révue de Littérature Comparée)』는 1921년에 창간되었으며 방 티겜의 선구적인 매뉴얼 『비교문학(La Littérature comparée)』이 출간된 해가 1931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비교가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처음부터 익숙한 실천이었음을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은 유럽문학, 특히 스페인 및 포르투갈 문학에서 유래하였고 새로운 문학은 이들 문학과 처음부터 비교·대조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신대륙에서 새로 생겨난 문학은 식민시기 내내 메트로폴리스의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자율성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 또한 두 문학 사이의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문학에 대한 분석은 문학의 상호관계와 라틴아메리카문학의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탐구를 의미했다. 한편으로, 이러한 비교론적 접근은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데 복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거나 새로운 표현양식의 발견에 우호적이었던 모델들을 입

6)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literature/laureates/1982/marquez-lecture-sp.html

증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정체성의 추구,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 전유와 문학적 변형, 문화접변과 문화횡단 등 라틴아메리카문학 일반의 문제는 비교문학 영역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주제들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륀티에르, 랑송, 그리고 그후에 H. A. 텐의 사상이 행운을 누리고 초기의 라틴아메리카 문학사가들과 문학비평가들 사이에서 P. 아자르나 발당스페르제를 비롯한 초기 비교문학자들이 널리 인정받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라틴아메리카문학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독자적인 문학운동으로 평가되는 모데르니스모가 대두하고 이 문학운동이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파리 쇄도 현상을 유발하였던 것이다. 20세기 벽두에 있었던 이 초기의 접촉은 비교문학의 기치 아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 교류의 먼 미래를 가리킨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문학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문학 교육이 제도화된 곳은 브라질뿐이었다. 브라질에서는 문학이론 교육과 함께 대학제도에 편입되어 '문학이론 및 비교문학'(Teoria Literária e Literatura Comparada)의 이중명칭 하에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1962년 '문학이론 및 비교문학'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파울루대학 외에 현재 적어도 세 개 대학(리우데자네이루, 벨루오리존치, 포르투알레그레)에 비교문학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석사과정은 상파울루대학을 비롯해 이보다 훨씬 많으며, 몇몇 대학에서는 비교문학이 문학 학부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 밖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문학 교육과 연구가 브라질만큼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도른하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는 후안 마리아 구티에레스, 리카르도 로하스 같은 비교문학자들이 존재했고 일찍이 1911년 소르본대학의 스페인어문학자 에르네스트 마르티낭쉐가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에서 "프랑스 낭만주의에 끼친 스페인의 영향"에 관한 첫 비교문학 강좌를 연 바 있다(Dornheim 1992, 34; Carvalhal 2006, 35에서 재인용).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비교문학이 제도적으로 정립된 것은 1960-70년대에 두개의 비교문학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였다. 그 하나는 1965년에 센터가 설립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톨릭대학이며, 다른 하나는 1976년에 설립된 멘도사 주의 쿠요 국립대학이다. 아르헨티나 비교문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도른하임은 "연구방법은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교육제도는 가까운 장래에 유럽이나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견줄 만한 체

계를 갖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38)고 다소 비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지만, 갈수록 많은 비교문학자들이 전국 각지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멕시코의 경우에는 1989년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에 비교문학 박사과정이 설치된 이래 비교문학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등의 국가들에도 역시 비교문학 연구자들이 존재하지만 분과학문으로서의 교육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고립된 강좌로 제공되거나 외국문학 연구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비교문학의 역사에서 브라질비교문학회(ABRALIC)의 창립은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당시까지는 외국문학 연구의 부산물로서 대체로 대학 내의 고립된 활동에 그쳤던 비교연구가 전문가들의 학술조직을 탄생시킴으로써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브라질비교문학회는 1986년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창립된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학술대회 개최, 발표논문집, 잡지 및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그리고 창립 당시부터 유지돼온 세계비교문학회(ICLA)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브라질 비교문학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 결과 2003년 홍콩에서 열린 제17차 세계비교문학회에서 브라질 여성비교문학자 프랑쿠 카르발얄이 회장에 선출되는 등 집행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의 제18차 세계비교문학대회를 리우데자네이루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7] 초기부터 라틴아메리카 여타 국가들의 비교문학자들을 결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온 브라질비교문학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이웃나라들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유사한 학회가 창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브라질비교문학회가 창설된 1986년, 리우그란데두술 연방대학에서 '제1회 라틴아메리카 비교문학 세미나'(Seminário Latino-Americano de Literatura Comparada)가 열려 라틴아메리카 비교문학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1989년에는 제2회 세미나의 틀 안에서 우루과이비교문학회(AULICO)가 출범했고 1992년에는 아르헨티나비교문학회(AALC)가 창설되었다. 또 멕시코와 칠레에서도 비교문학회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8]

---

7) 제18차 세계비교문학회 학술대회는 "2항대립을 넘어: 비교문학에서의 불연속과 이동"(Beyond Binarisms: Discontinuities and Displacements in Comparative Literature)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소수문학을 폭넓게 조명하는 등 서구중심에서 탈피해 논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문학이 분과학문의 지위를 획득하고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이후이며, 더 나아가 비교연구방법이 붐을 이루고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은 식민지적 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강력하게 정체성을 추구해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1970년대 말 이전까지는 원천과 역사적 영향관계에 대한 고찰에 천착하는 프랑스의 실증주의적 모델과 미국의 형식주의적 방법론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법론이 라틴아메리카문학 연구에 적용될 때 원천 텍스트는 언제나 서구의 문학작품이므로 처음부터 비교과정은 불평등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종속의 심화와 문화적 식민주의의 명백한 승인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비교연구는 문학사 기술과 문학이론의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문학사의 경우, 언제나 서구에서 유래한 운동이나 유파들을 준거로 삼고 지역적 표명은 그 파생물로 간주함으로써 외국 모델의 빛바랜 반영으로 환원시키는 시대 구분의 문제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학이론의 경우에는 비평이나 문학교육에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서구의 이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프랑스 구조주의의 황금기에 절정에 달한 이러한 비교연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970년대 말에 위기에 봉착한다. 이는 서구의 근대기획이 서구 자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한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

8) 카르발알의 지적대로, 개별적인 비교문학회 외에도 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라틴아메리카연구(Inter-Latin American Studies) 그룹들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arvalhal 2006, 35). 이들은 공통의 문화적 문제들, 즉 각국 고유의 것이지만 동시에 이웃국가들의 그것과 접점을 가지는 문학적, 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일례로 1993년 볼리비아의 라파스에서 시작된 라틴아메리카문학안데스주간(JALLA)의 조직자들을 언급할 수 있다. 또 포르투알레그레에서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공동프로젝트 '코노 수르의 비교문학'(Literatura Comparada en el Cono Sur)도 눈길을 끄는데, 이들은 특수한 문화적 맥락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탐사하는 라틴아메리카 비평담론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웃국가들의 만남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중재의 범주들"을 모색하고 있다. 개인적인 학문연구의 전통에 도전하는 이러한 프로젝트 내에서 비교문학은 순수한 문학적 실천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가깝고 먼 타자를 찾아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간적 관계들에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륙통합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와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차이의 개념을 강조하고 역사적 관점을 재평가함으로써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후기구조주의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자, 모방, 영향, 독창성 같은 공고화된 개념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비교문학은 강력한 보편주의적 경향을 지닌 통일성 있고 일치된 담론에서 타자와 차이에 주목하는 복수적이고 탈중심적인 담론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제 비교론적 접근에서 부각되는 것은 2차 텍스트에 불리한 유사성이나 연속성의 관계가 아니라 2차 텍스트가 1차 텍스트와의 상호텍스트적 대화에 도입하는 차별적 요소였다. 독창성과 우선성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해체되면서 과거의 위계적 질서는 상대화되었고 제도화된 중심부 모델의 열등한 모방으로 폄하되었던 라틴아메리카문학은 창조적 문화횡단의 산물로 새롭게 평가되었다. 예컨대, 가르시아 마르케스로 대표되는 마술적 사실주의는 서구의 초현실주의로부터 현실은 관찰과 논리, 의식적 추론을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다는 이성주의적 편견을 극복하는 방식을 전유했지만 유럽 아방가르드의 재생산이나 서구 전통의 지역적 변형을 넘어 탈권위적이고 탈중심적인 라틴아메리카의 창의적 소설미학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비교문학의 뿌리 깊은 자민족중심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모델의 가치체계를 전복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았다. 반명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준거는 여전히 서구적 전통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 자체를 해체하고 그 바탕을 이루는 위계구도를 탈구조화해야 했으며, 바로 여기에서 비교문학을 지탱하는 담론을 다른 토대 위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에 기여한 현대 사상의 또 다른 경향을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종속 같은 문제들이 항상 정치적, 문화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적 실천과 결부된 이러한 흐름들은 구조주의의 붐과 함께 냉각되었던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며 비교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적 차이와 맥락에 집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러한 차이들이 서구문학 전통의 전체적 테두리에서 갖는 의미를 연구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제 지금까지 비교연구에서 확실한 준거로 이용되었던 국가, 민족, 언어 같은 요소들은 파편화되었고, 국민문학과 비교문학 사이의 전통적인 이항대립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 일반문학의 추구에 바쳐진 이론적 논의는 의미를 상실했으며 그 자리는 지역 전통과 수입된

전통 간의 관계, 문화적 영향의 정치적 함의, 문학 정전과 시대 구분의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 등의 맥락화된 문제들이 차지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다원적이고 유목적인 관점으로의 중심 이동과 함께 라틴아메리카문학처럼 헤게모니적 중심에 의해 제도화된 획일적 범주는 취약성을 드러냈고, 그 대신 아프로쿠바 문학, 여성문학 등 인종적, 성적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대안적 표현형식을 제시하며 비교문학의 중심 분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비교문학 모델의 단순한 전도도 아니고, 자민족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이 단순히 주변부로 확장된 것도 아니었다. 이제 라틴아메리카 비교문학의 새로운 목표는 비교문학이라는 분과학문 고유의 횡단성(transversalidad)을 담보하는, 동등성에 기초한 다양한 문화 사이의 대화의 구축이었다. 에두아르두 코우티뉴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문화들 간의 대화로"(Coutinho 2003, 31)라고 요약한 이러한 방향의 변화는 번하이머 보고서가 제시한 "앵글로아메리카 및 유럽 중심적 시각의 다문화적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Bernheimer 1995, 44)와 그 흐름이 맞닿아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하나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패러다임을 이전하는 것의 비효율성을 증거한다. 통일성과 동질성 개념에 바탕을 두었던 '국민문학' 개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하고 혼종적인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는 마야, 잉카, 아스테카 등 풍요로운 토착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화, 프랑스와 영국의 문화제국주의와 연결된 그 뒤의 미국의 신식민화는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복잡한 방식으로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비교문학의 탈중심화는 국제적, 학제적 성격을 강화시켜 문화연구의 틀 속에서 복잡한 문화적 관계망을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와 헤게모니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사(local histories)가 주목받으면서 가속화되었는데, 여기에는 비교문학을 비롯한 기존의 분과학문 중심의 담론들이 라틴아메리카를 효과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알폰소 레예스, 호세 마르티 등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는 서구에서 문화이론이 생겨나기 훨씬 전인 19세기말부터 문화접촉의 성격과 영향을 이론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온 오랜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찍이 '문

화'의 범주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문화적 제국주의에 맞서 문화적 민족주의가 방어기제로 작동했기 때문이다(우석균 2002, 284). 가령, 20세기 초에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 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 같은 페루 지식인들이 주도한 인디헤니스타 운동은 문화적, 인종적 차이와 토착적 전통에 대한 적극적 재평가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식민주의에 의해 강제된 문화적 동질성에 저항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의 에세키엘 마르티네스 에스트라다, 브라질의 질베르투 프레이레, 쿠바의 페르난도 오르티스, 멕시코의 호세 바스콘셀로스 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문화횡단과 국가정체성의 문제를 성찰하였다.

한편, 문화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학제연구는 비교문학의 형식주의적, 실증주의적 경향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문학작품은 이제 배타적으로 미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문화적 생산물로서 여타 지식 영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했다. 가장 두드러진 가능성의 하나는 인류학과 사회학의 영감을 받아 —가르시아 캉클리니, 페르난도 오르티스, 코르네호 폴라르, 앙헬 라마의 학제적 작업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적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횡단적 문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비교론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교론적 방법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화적 혼종성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유용한 비평적 도구를 제공한다. 특히, 이종적이고 다질적인 문화적 근원들이 때로는 갈등하며 또 때로는 조화하며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드러내준다. 이처럼 문화연구 방법론은 문학 중심 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이론형식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적 사유'의 전통을 강조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식인들은 미국의 대학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연구에 대해 비교문학과 마찬가지로 중심부가 라틴아메리카를 포섭하고 타자화하기 위한 헤게모니 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날에는 라틴아메리카 문학 및 문화에 대한 어떠한 독점적 개념도 논쟁을 피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그 혼종적, 복수적 성격을 고려하는 대안적 제안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제안들은 비교문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취하고 있는 방향의 복수성의 증거이며, 이는 최근까지 주변부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비교연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타 지역들에서 발견되는 경향과

완벽한 동조를 보인다. 이제 세계문학, 일반문학에 대한 열정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차이의 인정에 토대한 문화횡단적 대화로 이행하고 있다.

Ⅳ. 나가며: 진정한 보편이론을 위하여

알폰소 레예스는 「아메리카의 지성에 관한 메모」에서 자신들을 세계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 앞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설정해온 문제적 관계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는 "문명의 향연"에 뒤늦게 도착했다고 천명한 후에 레예스는 역설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진정한 보편화의 공간"으로 긍정해낸다. 자신들의 문화를 보편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서구인들은 그들의 세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에 모습을 나타낼 필요성이 없었지만 라틴아메리카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인정하기 위하여 항상 타자를 바라보기를 강요당했으며, 이를 통해 타자의 사상과 자신의 고유한 사상에 대한 나름의 읽기를 발화할 수 있으므로 라틴아메리카야말로 진정한 보편주의가 표명되는 공간이라는 주장이다(Reyes 1997, 87). 레예스는 라틴아메리카가 이 역사적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주변부적 조건을 거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세계성은 그 특이성 또는 예외성의 긍정이나 국제시장에의 통합이 아니라 주변부적 아이덴티티의 환영에 미혹되지 않고 세계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우리의 자산은 우주"(Borges 1974, 273)라고 선언했던 보르헤스의 문학에서 세계시민권의 인식과 관련하여 레예스가 제안한 어젠다의 엄밀한 실천을 찾아볼 수 있다. 보르헤스는 "우연히"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유럽작가라는 클리세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에세이 「아르헨티나 작가와 전통」에 잘 드러나 있듯이, 보르헤스의 보편성은 명시적으로 아르헨티나적인 발화의 결과라는 해석이 일관되게 제기되어 왔다. 가령, 『보르헤스, 변두리 작가』에서 베아트리스 사를로는 보르헤스에게서 코스모폴리터니즘은 아르헨티나문학을 위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본다. 즉,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전통을 재창안할 때 보르헤스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구문학과의 대화를 통해 변두리로부터 하나의 미학을 구축했다는 것이다(Sarlo 2003, 14-15). 따라서 국가적인 동시

에 탈국가적인 그의 글쓰기는 세계문학 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서구적 가정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류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실비아 몰로이가 제기한 "보르헤스 문학의 자리없음(no lugar)"(Molloy 1979, 18) 개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르헤스의 정전화는 유럽 문학시장에 의한 '발견'이나 대서양횡단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변두리 미학이 유럽 모더니티의 지적 가설에 대한 심오한 단절을 가져왔다는 데서 기인한다. 사를로는 중심부를 강타한 보르헤스의 변두리 공간을 "주변부적 모더니티"(modernidad periférica)라고 부른다.

알레호 카르펜티에르, 옥타비오 파스, 카를로스 푸엔테스 등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작가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보르헤스의 예는 세계문학 논쟁에서 불명확한 것을 해명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즉 라틴아메리카문학에 대한 서구세계의 인식과 이 문학이 실제로 세계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 사이의 괴리를 말한다. 서구에서 라틴아메리카는 전통적으로 중심부의 논리에 대한 영속적인 종속이 존재하는 주변부나 반주변부(semiperiferia)로 폄하되어 왔으며, 20세기 후반 세계적 수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의 한사람인 보르헤스를 배출한 라틴아메리카문학은 흔히 지정학적 공간에 대해 문학공간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는 모델의 전형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출판 산업이나 지리문화적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라틴아메리카문학의 국제적 인정은 이 요소들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근대적 식민주의 패러다임의 고갈과 관련이 있다.

문화적 시민권과 관련하여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라틴아메리카문학의 이론을 위하여』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쿠바의 비평가는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을 거론하면서 한 세기 반이 지난 지금도 "아직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문학 혹은 일반문학이 존재하지 않는다"(Fernández Retamar 1995, 79)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문학세계는 파편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학이론은 하나의 문학에 관한 이론"(p.82)에 불과하다. 동질적인 세계도 보편적 문학생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레타마르는 세계문학의 "사이비 보편성" 앞에 이러한 비평적 어젠다를 제안한다: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 현실을 고려하고 그 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만 전 세계를 통해 우리의 공통분모를 인식하고 실제적 유대를 발견할 것이며 또 언젠가 정말로 일반문학에 대한 보편이론

(la teoría general de la literatura general)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134) 레타마르의 지적대로, 복합문화적인 라틴아메리카의 복수성(pluralidad), 다시 말해 지역적 특수성과 횡단적 보편성의 그 독특한 변증법을 주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낼 때 비로소 비교문학은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학문을 강화하고 진정한 보편이론으로서의 존재의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우석균(2002),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이론들: 통문화, 혼종문화, 이종혼형성」,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5, No. 2.

Achugar, H., "Pluralidad incontrolable de discursos y balbuceo teórico," http://www.laciudadletrada.com/Archivo/hachugar.pdf

Bassnett, S.(1993), "*Comparative Literature: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Bernheimer, C.(ed.)(1995),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Baltimore &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everly, J.(1993), "*Against Liter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orges, J. L.(1974), "El escritor argentino y la tradición," *Obras completas*, Vol. I, Buenos Aires: Emecé Editorial.

Bowra, C. M.(1955), "*Inspiration and Poetry*", London: Macmillan & Co.

Carvalhal, T. F.(2006), "La literatura comparada en América del Sur," Alicante: Biblioteca Virtual Miguel de Cervantes.

Clements, R. J.(1978), "*Comparative Literature as Academic Discipline*",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Coutinho, E. F.(2003), "*Literatura comparada na América Latina*", Rio de Janeiro: EdUERJ.

Damrosch, D.(2003), "*What is World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e la Campa, R.(1999), "*Latin American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Dornheim, N.(1992), "Littérature comparée en Argentine," *Amérique Latine et comparatisme littéraire/La nouvelle, Révue de Littérature Comparée* 1/1992, pp.36-38.

Fernández Retamar, R.(1995), "*Para una teorí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Bogotá: Instituto Caro y Cuervo.

García Canclini, N.(1989),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México D. F.: Grijalbo.

González Echevarría, R.(2004), "Latin American and Comparative Literatures," in Sophia A. McClennen & Earl E. Fitz(eds.),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and Latin America*, Indiana: Purdue University Press.

Hernández, F.(2003), "*Diario invento. Abril de 1998-marzo de 1999*", México: Aldus.

Mignolo, W. D.(2000), "*Local Histories/Global Desig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olloy, S.(1979), "*Las letras de Borges*", Buenos Aires: Sudamericana.

Moraña, M.(ed.)(1997), "*Nuevas perspectivas desde/sobre América Latina: El desafío de los estudios culturales*". Santiago: Editorial Cuarto Propio.

Moreiras, A.(2001), "*The Exhaustion of Difference: The Politics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Moretti, F.(2000),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 pp.54-68.

Morse, R. M.(1989), "*New World Soundings: Culture and Ideology in the America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Rama, A.(1987), "*Transculturación narrativa en América Latina*", México D. F.: Siglo XXI.

Reyes, A.(1997), "Notas sobre la inteligencia americana," *Obras completas*, Vol. XI, México: FCE.

Sarlo, B.(2003), “*Borges, un escritor de las orillas*”, Buenos Aires: Seix Barral.

Spivak, G. C.(2003), “*Death of a Discipli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Tötösy de Zepetnek, S.(1999), “From Comparative Literature Today towar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http://clcwebjournal.lib.purdue.edu/clcweb99-3/totosy99.html

http://sololiteratura.com/php/docinterno.php?cat=miscelanea&doc=171

논문투고일자: 2007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자: 2007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10일

김현균(Kim, Hyeon-Kyun)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E-mail: pedrokim@snu.ac.kr